17. ???? ????? ??

금융을 공부하다 보면 , 공매도과 선물매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. 저는 그랬습니다 . 둘 다 가격이 떨어졌을때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.

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.

????? ?? ??

???(Short selling, Short)

공매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, 투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을 빌려서 판 후 에 , 나중에 진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빌린 자산을 사서 돌려주는 것 입니다 . 예를들어 현재가 10,000원에 주식을 빌려 판 후 , 가격이 떨어져 9,000원이 되면 그때 주식을 사서 돌려주는 것이지요 . 그러면 1,000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.

????(Short)

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.
선물매도로 숏을 치는 경우에는 , 투자자는 현재 10,000원의 주식을 일정기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"너에게 10,000원에 팔겠다 "는 계약을 하는 것 입니다 .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주식이 9,000원이 되면 투자자는 9,000원짜리 주식을 "너에게만 " 10,000원에 팔아 1,000원의 차액을 얻는 것이지요 .

크게 보면 두 가지의 작동원리는 다르지만 : 공매도는 빌려서 팔고 사서 갚고 , 선물은 계약에 따라 해당 시기에 사서 바로 팔고 . 결론은 동일합니다 . 그리고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옵션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.

??? ?? ??

현실에서 이 두가지의 가장 차이는 이익실현과 보험 (위험분산 , 또는 헷징)의 차이입니다 .
공매도의 경우에는 큰 목적이 시세차액에 따른 이익실현 이 목적이지만 선물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보험 (위험분산 , 헷징)의 목적입니다 . 물론 현실에서는 동일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요 ..

Revision #5
Created 18 March 2024 22:47:34 by Enigma
Updated 19 March 2024 00:55:38 by Enigma